

나주 ‘마중 3917’ 국내테마여행 10선 선정

문체부·한국관광公 공모…고택 활용 한옥숙박체험장
관광콘텐츠 육성 8천만원 지원 新 관광명소 ‘급부상’

나주시 소재 ‘마중 3917’ (대표 남우진)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나주시는 15일 “1939년 지어진 목서원 등 고택을 활용한 한옥숙박체험을 운영하는 ‘마중3917’ (대표 남우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중3917은 ‘오랜 길목에서 마주친 특

별한 시간, 별안간 나주’를 주제로 지난 3월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문체부로부터 관광 아이템 개발·운영, 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등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 8천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목서원은 1896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나주를 수성한 향리수장 난파 정석진의 손자 정덕중이 모친을 위해 1939년 건립한 가옥이다.

특히 한·일 양 건축 양식을 절충한 근

현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대표적 건축물로 당대 건축 대서사였던 박영만이 설계와 공사를 맡았다.

남 대표는 2017년부터 목서원을 비롯한 1915년에 지어진 ‘난파정’, ‘시서헌’(1917년) 등 고택과 정원, 창고까지 옛 건축물과 풍경을 원형 보존을 최우선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목서원을 중심으로 4천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공연, 체험, 숙박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진행하는 등 나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마중3917은 매 주 주말 ‘금성별곡’, ‘울정별리’, ‘별보는 우부리’ 등 나주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남도 먹거리의 진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남도 음식 명인의 맛 콘서트’, ‘골목요리사들의 별미식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남도의 가락과 고즈넉한 고샅길 풍경이 어우러진 ‘별빛이 아름다운 별미고샅길’을 조성, 목서원 일대 나주향 교편역을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중3917이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마중물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우진 대표는 “이번 공모 선정에 힘



나주시 소재 ‘마중 3917’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마중 3917’ 전경. /나주시 제공

입어 나주에 잘 보존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샅길을 적극 활용해 나주향교권역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김영수 기자

완도 신지면 임촌마을 1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완도군은 최근 신지면 임촌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 대상 치매선별 전수조사와 인지 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관리사 돌봄 활동 지원, 힐링 나들이, 원예 요법, 마을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지면의 임촌마을은 치매 예방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마을 주민의 참여 의지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해 후보지 중 최종 선정됐으며 청년·부녀회 등이 중심이 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 ‘제10회 하의면민의 날’ 행사 성료

‘제10회 하의면민의 날’ 기념행사가 최근 박우량 신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등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생활개선회 난타공연, 갯돌 공연 등 식전행사와 기념식, 체육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행사는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줄다리기·단체줄넘기·계주달리기 등 체육행사까지 더해져면민들의 단합력과 자긍심을 높이고 애郷심을 고취시켰다. /신안군 제공

무안, 2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무안군은 지난 14일 무안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2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주도의 단위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상항식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2기 도시재생대학은 신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3월부터 4월까지 7회에 걸쳐 운영했다.

한편, 무안군은 앞으로 제3기 도시재생대학을 실시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재생 지역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무안=전영태 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소통 ‘현장행정’ 눈길

수질관리·쓰레기처리·교통 등 추진상황 점검

김종식 목포시장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목포시는 15일 “김 시장이 수질관리, 쓰레기 처리,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 직원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첫 행보로 김 시장은 지난 13일 목포

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해수질관리과를 방문해 하수 정화와 방류 등 수질관리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악취와 기계 소음 속에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하게 제 할 일을 다 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며 “목포는 지금 변화와 도약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할 때다. 공직자로서 시민만 보고 앞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이어 “앞으로 사업소, 시설관리사무소 등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업무현장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하고 직원들과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등 시장 추진 동력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한빛원전,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 부스 운영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석기영)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원자력 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사진>

광주시 소방본부가 주최한 ‘2019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은 3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소방안전 체험 등 50여개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행사다.

올해로 네 번째 행사에 참여하는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자력에너지 안전해요!’라는 주제로 ‘네버랜드를 구하라’ 3D 상영관을 설치해 홍보부스를 찾은 아동들과 사·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었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산업안전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새로운 홍보채널을 개발하는 등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